

대구광역시



윤경희 청송군수는 2일 오후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보고회'에 참석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일 오후 시청 강당에서 열리는 4월 직원 월례회에 참석한다.

예천, 저출생극복 첫 발 내디뎠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이 부모 함께 행복한 예천으로 거듭 태어난다

예천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 임신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든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예천군에 산후조리원이 없다. 산모들은 높은 비용 부담과 원정 출산이라는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천읍에 건립 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은 관내에서 산후조리를 가능하게 만들고 산모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줘 되면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신혼부부의 건강검진과 임신부 산전 검사비 그리고 기형아 검사비와 초음파 검사비 지원 등 출산 전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난임부부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와 영유아 발달정밀 검사비도 지원한다.

'행복한 임신부 교실'을 운영, 태아와 임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출산 준비를 돕고 있다.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겪어보았을 돌봄 공백은 육아를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50%가 넘는 맞벌이 가구의 비율(23년 6월 기준)만 보더라도 돌봄 시설의 확충이 얼마나 절실한지 짐작할 수 있다.

경북 학교 52곳 배움터 지킴이실 현대화...9억 투입

경북교육청이 올해 9억원을 들여 '배움터 지킴이실' 설치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환경 개선과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해서다. 지난달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지원

군은 영유아기부터 초등까지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원도심에는 장난감도서관과 돌봄센터를 갖춘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를 개관해 운영한다.

호명읍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연령별 돌봄이 가능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개관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경북교육청과 함께 경북형돌봄거점센터를 만들고 돌봄과 방과후 학교를 통합한 늘봄학교 운영을 추진한다.

■건고한 교육역량 체계 완성

사교육의 발달은 지역간 개인간 교육격차를 만들고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군은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으로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중·고교 인성교육과 학력 신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예천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토대로 K-인성교육을 강화한다.

학력 신장을 위한 '학력신장중학교'를 추진, 수준별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중심의 IB교육 과정 시범 도입, 시대 변화에 맞춘 디지털 교육도 강화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신도시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나 돌봄 체계의 구축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천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신청받은 결과 74교가 접수했다.

경북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학교 52교(초등학교 26곳·중학교 10곳·고등학교 16곳)를 선정한다. 학교당 최대 2000만원씩 총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학교는 6월말까지 방문객 인식 폐쇄회로(CO)TV, 방문객 접근 금지 음성 출력 시스템, 냉난방기 등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배움터지킴이실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김성용 기자



김진열, 삼국유사테마파크 주요사업공사 현장 방문 김진열 군위군수가 의흥면 삼국유사테마파크 내부 총 100억 원의 예산(경북도비 60억, 군비 40억)을 들여 추진중인 '아이누리 키즈공원'과 '물입형 미디어아트 체험관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군위군 핵심 공약인 글로벌 문화관광스포츠 도시건설을 위해 지역 내에서 충분한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테마파크 주요사업장에서 관련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타당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 군수는 "테마파크 내 양질의 콘텐츠 투입은 지역관광 활성화,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사진=군위군 제공)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백년대계 사업

강영석, 통합 신청사 건립 차질 없이 추진 최선 다해

상주시가 통합신청사건립타당성조사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중간보고회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영석 상주시장, 이경용 상주시의회 부의장, 상주시의회 의원,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현 상황, 사전 의견수

렴 결과 및 타시군 유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상주시 통합 신청사 적정 규모와 건축 기본 구상안 등이 제시됐다.

기본구상안은 지상층 4개, 주차장 3개의 계획안으로 △법적 제한면적 내 사무공간 확보 △시민광장, 북카페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 확보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제시됐다.

세부적으로 5, 8, 10, 15층 건축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지하 1·2층 및 지상 주차 공간 조성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뤄졌다.

조성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의 논의와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비 분석, 현 청사 부지 활용방안의 보고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보완을 계속하고 5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 7월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은 향후 미래 100년 상주 발전의 토대가 될 사업이다. 통합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최수니까 0.5평 모로 누워 칼잠도 참아라?

5~8명이 3.6평서 생활... 인권위 "한계 넘는 처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북의 한 교도소의 과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 교도소는 수형자 1인당 면적이 한 평(3.3㎡)을 넘긴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26일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 처우"라며 경북의 A 교도소에 과밀이 발생하지 않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B씨는 A 교도소에서 정원을

초과한 거실에 수용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교도소는 과밀이 되더라도 교도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수용을 거절하거나 수용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고, B씨가 과밀로 어떤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주장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B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119일간 면적 12.07㎡(3.6평)의 혼거실에서 다른 수형자 5~8명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좁을 때는 1인당 사용 면적이 1.72㎡(0.5평)에 불과했다. 가장 넓었을 때조차 1인당 사용 면적은 2.41㎡(0.7평)로 법무부가 규정한 수용자 최소수용 면적인 2.58㎡보다 좁았다.

과거 군대 생활관(내무반)이 침대형으로

개선 사업이 이뤄지기 전 침상형일 때 장병 1인당 주거 면적(2.3㎡) 수준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에 대해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며,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수준"이라며 "인간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는 처우"라고 지적하는 한편, "과밀 수용 문제는 개별 교정기관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미결구금의 증가, 가석방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의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및 부지선정 등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에 A 교도소의 과밀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병문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감감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일보 는 독자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TK 총선 투표소 확정 대구 655곳 경북 926곳

선거공보 통해 확인 가능

대구·경북 선거관리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를 확정했다.

대구시는 655곳, 경북도는 926곳이다.

양 선거관리위는 세대마다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중앙선거관리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북 전체 투표소 926곳 중 918곳(99.13%)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대구투표소 655곳도 유권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설치된 장소에 모두 마련했다.

노인·장애인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치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명과 약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

이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서도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권·공약과 재산·병역 사항·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 시·각장에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http://nec.go.kr)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구·경북선거관리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미경 기자



격전지 경산 '조지연 對 최경환' 휴일 유세 총력전

조 "젊고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 최 "경산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경산시선거구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경산공설시장에서 유세 대결로 세몰이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와 무소속 최경환 후보간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조지연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경산시장 입구에서 국민의힘 대구 수석감 주호영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조 후보는 무소속 최 후보와의 대결을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규정짓고, '힘있는 젊은 일꾼'을 강조했다. 그는 "경산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유치가 많아야 하며 정부여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만이 할 수 있다"면서 "젊은 일꾼 한번 키워 달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조 후보는 무소속 최 후보를 겨냥해 "새로운 경산 발전을 위해 과거로 돌아가면 안된다"라며 "힘있는 집권여당의 후보가 경산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최경환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같은 장소

에서 유세 맞불을 놓았다. 선거대책본부장인 최경환은 경산시장과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참석해 지지세 결집을 노렸다. 최 후보는 "경산시민들의 성원으로 4선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집권여당 원내대표를 할 수 있다"며 "인물론을 펼쳤다" 이어 "5년여의 공백에도 멈춰선 경산을 다시 일으켜 세울 달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보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반드시 승리해 새로운 경산의 발전,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윤 기자

김기웅 42.3% 허소 23.2% 도태우 20.3%

대구 중·남구 여론조사

대구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 중·남구에서 여당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4·10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 반복 사태로 보수 표심이 분열돼 최대의 격전지로 꼽힌다.

대구·경북지역 매체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대구 중·남구에 사는 유권자 501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기웅 국민의힘 후보가 42.3%의 지지율로 허소 더불어민주당 후보 23.2%, 도태우 무소속 후보 20.3%를 앞섰다.

'지지 후보 없음'(9.2%), '잘 모름·무응답'(5.0%)을 합친 부동층은 14.2%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지지 후보는 차이가 컸다.

김 후보는 70대 이상(65.0%), 50대(50.1%), 60대(47.9%) 등 고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허 후보는 40대(45.9%), 30대(35.6%)에서 앞섰다. 허 후보는 60대에서 김 후보에 이어

31.6%의 지지를 얻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가 가운데 김 후보 67.9%, 허 후보 25.5%, 도태우 1.0% 순으로 지지를 보였으며, 민주당 지지층의 87.7%,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76.5%는 허 후보를 선택했다.

도태우는 기타 정당을 택한 유권자 중 67.5%의 지지를 받았다. 무당층 중에서는 김 후보 13.8%, 도태우 11.4%, 허 후보 6.3% 순이었다.

투표 의향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59.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28.5%, '투표하는 날 가봐야 알겠다' 9.3%였다.

'투표하지 못하거나 안 할 것 같다'는 1.5%, '잘 모름·무응답'은 0.8%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 응답률은 6.5%다. 무선전화 100%로 무작위 추출한 가상 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미경 기자

대구선거관리 투표소 점검 강화 4일 최종 선거관리 모의시험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예정된 시설에서 불법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는 등 선거 관리에 이상이 커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시선거관에 따르면 현재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직접 투표용지 인쇄 과정을 확인·점검했다. 한 위원장은 대구의 한 인쇄소를 찾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142만2500매 인쇄 과정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나 특이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선거관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인쇄 기간인 오는 1~3일 정당 추천 선관위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인쇄감독반을 편성해 투표용지 일련번호의 결번·월번이나 누번·중복이 없는지, 인쇄 상태·재단 규격이 적절한지, 투표용지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인쇄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정당추천 선관위원 입회하에 구·군선거관으로 송부되고, 이후 읍·면·동위원회 배부 전까지 별도의 보관 장소에서 경비 경찰의 협조를 받아 안전하게 보관된다.

대구시선거관 관계자는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 감독과 점검에 위원장이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선거관은 오는 4일 오후 2시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소 설치와 최종 모의시험을 하는 등 공정한 선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미경 기자

국힘 '내집 지키기' 중·남구에 화력 집중

민주당은 오늘 김부겸 투입



4·10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구의 여야 진영이 현재 상황과 판세를 분석하며 총력 유세전을 펴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구 12개 전 지역구 석권을 노리고 있지만, 상대적 취약지로 중·남구를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반복 사태로 보수 표심이 분열된 중·남구는 여당과 야당, 무소속까지 후보 3명이 나섰다.

허소 더불어민주당 전 청와대 행정관(54)과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은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62), 5·18 평화 발원 논란으로 여당의 공천이 취소돼 탈당한 무소속 도태우 변호사(54)가 치열하게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중·남구는 보수 색채가 강해 보수정당이 내리 당선될 곳이지만,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의 공천 반복 사태에다 지명도가 낮은 정치 신인의 전략 공천으로 보수 표심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김기웅 후보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퇴근시간 차량이동이 많은 명동네거리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직자, 지방의원 등과 함께 김 후보를 지원하는 합동 유세에서 세(勢)와 시(時)에 나설 예정이다.

합동 유세에는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중진의원도 참석,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 당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더불어민주당은 인지도 높은 거물급 인사를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투입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대구를 찾아 유세를 지휘한다.

김 위원장은 대구 수성구갑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다.

한때 대선주자급 정치인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정계에는 퇴장했지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승리 위해 등판시켰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수성구 신매광장과 이마트 만촌점 인근에서 강민구 대구 수성구갑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를 진행한 뒤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을 찾아 대구로 유세전을 펼칠 예정이다.

동성로 집중 유세에는 대구에 출마한 민주당 모든 후보와 운동원들이 집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미경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gy.com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57-9000 경영지원국 053-257-5000 광고국 053-257-0800 문예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5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일일실 053-25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 외무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상북도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항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교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세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아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경북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4·환장·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용 웹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지원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동구청, 치매안심마을 사업 활성화 나선다

동구보건소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신암1동, 동촌동, 안심1동, 공산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 바로알기' 경로당 순회교육, 치매 인식개선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동별 구위협군 집중검진,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주요 관변단체 대상 치매 인식개선 및 돌봄역량 교육 등 사업 대상 및 운영 장소다

양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구 동구보건소는 2024년 치매안심마을 사업 활성화의 첫 시작으로 지난달 15일부터 4개 동별 상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천만 영화 '파묘' 패러디 참꽃문화제 홍보

군청 직원들 홍보영상 직접 출연 김고은·최민식 연기모사 능숙 소화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를 달성군청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한 패러디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달성군은 지난달 29일 공식 유튜브 채널 '전국 달성사랑'에 약 40초 분량의 파묘 패러디 영상을 공개했다.

파묘의 예고편 형식을 본떠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열릴 비슬산 참꽃문화제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영상에는 군청 기획예산실, 교통과 등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직접 출연했다.

이들은 영화 속 이화림(김고은 배우), 김상덕(최민식 배우) 등으로 변신해 열정적인 연기를 선보인다.

여기에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비슬산 참꽃군락지의 풍경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이화림이 굿을 하는 장면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한복, 오방기 등 섬세한 소품도 눈에 띈다. 영상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에도 게재돼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시민들은 "말입감이 장난 아니다. 진짜 파묘 예고편인 줄", "이런 콘텐츠를 기획한 분, 결재한 분, 연기한 분 모두 리스펙트(존경)한다", "영상 내용처럼 참꽃이 멋지게 피면 좋겠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호응했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여러 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참신한 홍보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달성군의 정책소식, 여행정보, 문화행사 등을 시민들에게 쉽고 재밌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파묘 패러디 영상은 달성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이나 유튜브 검색창에 '달성군청' 또는 '달성군'을 검색해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 가능하다.

한편 제28회 비슬산 참꽃문화제는 오는 13일~14일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다.

축하공연과 버스 운영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채워진다. 비슬산 참꽃군락지의 개화상황 실시간 생중계 영상은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달성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미경 기자



달성 구지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구지면장학회는 지난달 29일 제16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장학회 임원, 지역 내 기관단체장, 장학생 및 학부모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수여식에는 지역 인재의 양성을 위해 50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한 (주)구영테크 이회화 회장을 비롯해 각 10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한 (재)구지면장학회 박권필 전 이사, 전 송 암서예학원 서영교 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방중영 구지면의사는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표한다"며 "학생들 모두 지식을 얻고 배우며 성장하여 통찰력과 지혜를 가진 학생들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재)구지면장학회는 지난달 29일 제16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장학회 임원, 지역 내 기관단체장, 장학생 및 학부모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수여식에는 지역 인재의 양성을 위해 50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한 (주)구영테크 이회화 회장을 비롯해 각 10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한 (재)구지면장학회 박권필 전 이사, 전 송 암서예학원 서영교 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방중영 구지면의사는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표한다"며 "학생들 모두 지식을 얻고 배우며 성장하여 통찰력과 지혜를 가진 학생들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수성구보건소, 2024년 방역발대식 개최

수성구보건소는 1일 방역관계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수성구 방역발대식을 개최했다.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소독방법, 주의사항 등 이론 교육과 방역장비 시연, 약품 취급요령 등 현장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해충, 해충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성구 방역기동반은 27개 반, 31명으로 편성돼 오는 10월까지 방역 취약지와 민원 발생지에서 분부·연무 소독, 유충구제 등 방역 활동을 펼친다.

특히 해충 활동이 정점에 이르는 5월부터 9월까지 '합동방역의 날'을 운영하고 야간 연무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최근 찾아간 이상 고온 현상으로 해충 발생과 해충 매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방역업무를 추진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중구청, 근대골목 밤마실 예술이벤트 운영

매주 금토 약령시한의학박물관 일원 음악공연·아트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

중구청은 4월부터 중구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인 근대골목 밤마실의 예술 이벤트를 운영한다.

매주 금·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약령시한의약박물관(달구벌대로 415길 49) 일원에서 진행되는 밤마실 예술 이벤트는 장구, 아코디언, 가요, 가곡 등의 음악공연과 달동·종이집·부채 가만 만들기 등의 아트체험을 운영한다.

체험을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가만 만들기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이 직접 만든 종이 가만을 쓰고 근대골목을 투어하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구에서는 매주 금·토 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근대골목 밤마실을 운영한다. 근대골목 밤

마실은 밤의 정취가 어우러져 고즈넉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근대골목을 따라 서문시장 야시장으로 도착하는 프로그램이다.

계산애가, 이상화·서상돈 고백,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을 야간개방해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투어 중에는 근대 인력거 체험과 시낭송, 탁본 체험, 달동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

'근대골목 밤마실' 투어 등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검색 포털에 '골목투어 신청'을 검색하거나 중구 관광과(661-2625)로 문의하면 된다.

류규하 구청장은 "근대골목 밤마실이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선정, 지방자치경쟁대전에서 수상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근대골목 밤마실을 더욱 활성화시켜 대구가 글로벌 야간 관광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도로 소통정보 제공, 모든 간선도로로 확대

26억 투입, ITS 구축 연말 완공
통행속도·소요시간 정보 제공

대구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2024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연말 완공을 목표로 4월부터 본격 구축을 시작한다.

지능형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교통시설에 접목시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일련의 기술을 말한다. 도심 주요 도로에 설치된 구간별 소요시간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도로전광표지판이 대표적 서비스다.

시의 2024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국토교통부 국고 보조예산 6.8억 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억 원과 대구시 자체예산 14.2억 원 등 총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긴급공사, 사고, 낙하물 등의 돌발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돌발상황관리시스템 확대, 폭우로 인한 침수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즉시 알림 기능 개발,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

유한 교통정보제공체계 고도화 등이다.

'돌발상황관리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카메라가 교통사고, 낙하물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찰, 공공시설관리공단 등의 유관기관과 도로 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기 구축한 신천대로의 상·하행·달서구 구간과 연결되는 서대구IC 인근에 추가 설치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도로가 침수돼 신천동로 등의 상습 침수구간에 차량 진입이 통제될 경우, 운전자들이 사전에 우회할 수 있도록 대구시 전역 69개 도로전광표지판(VMS)과 교통상황정보누리집을 통해 교통통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침수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69개 도로전광표지판에 일일이 서로 다른 전광판 표출 형식을 감안해 '침수지역 진입 금지' 등의 메시지를 입력했지만, 신규 개발되는 '원터치 알림 기능'을 통해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단 한번의 동작으로 긴급 메시지를 원하는 지역 내 모든 도로전광표지판에 일괄 송출함으로써 보다 빠른 재난 대응과 교통통제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다.

또한 기존 대구시가 자체 수집하는 교통정보만을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내비게이션 정보를 포함한 전국의 교통소통정보가 집중되는 '국토교통부 ITS국가교통정보센터'의 빅데이터 정보를 실시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교통정보 수집의 시각지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6차로 이상 모든 도로의 구간별 소요시간, 통행속도, 사고 등의 정보를 도로전광표지판 및 교통상황정보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20개소, 교통상황관제용 CCTV 7개소, 도로전광표지판 1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2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민 교통안전에 위한 정보 수집·제공 체계도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과 '재난대비'이다"며, "국비가 투입되는 대구도인프라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세심한 사업관리와 함께 시스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추경호 의원, 달성 농업환경 획기적 개선 추진

"농업인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쟁길 것"

추경호 국회의원이 "농업인 여러분 고충을 늘 경청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하변면 이전 약속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며 달성군 농업환경의 획기적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그동안 추경호 의원은 달성군 신당·화본·현풍지구 배수 개선 사업 등 달성군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규모 신규 사업 유치는 물론 문제인 정부 4대강 보·과파 저지 활동 및 보 개방에 따른 양수 시설 무용지물과 등의 문제를 농업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해왔다.

달성군은 농지 경지 면적이 7284ha (밭 5036.5, 논 2182.8, 과수원 64.4)로 대구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이다.



쌀은 물론, 마늘, 양파, 참외, 수박, 토마토 등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달성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월 농공유에 달성지사 신사옥을 건립하고 남구 대명동에서 이전해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추 의원은 바쁜 선거운동 일정 중에도 달성군 농업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왔다. 그 결과 최근 매년 가뭄으로 용수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농민들을 위한 달성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총사업비 약 240억원, 달성

군 현풍읍, 유가읍, 구지면·창녕군 대합면 등 수해면적 1356ha)이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배수 및 공급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도 3건을 신규 추진하게 됐다. 농공유 금포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개보수 (총사업비 78.22억원, 배수장 시설 및 제진기 설치), 옥포동부지구 영농편의 수리시설개보수 (총사업비 43.77억원, 배수로 2km 구조물화), 다시읍 달천지구 영농편의 수리시설개보수 (총사업비 32억원, 용수로 5km 개보수 및 수로교 1km 철거) 사업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변면 이전을 공식화한 대구시는 4천억원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공모 진행 중인데, 대구시와 함께 농림부를 적극 설득해, 하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21세기형 첨단 농수축산물 유통시설을 갖춘 도매시장으로 건립되어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유통구조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한수원과 함께하는’ 경주 바람의 언덕 전국 힐클라임 대회

경주에서 ‘한수원과 함께하는 경주 바람의 언덕 전국 힐클라임 대회’가 개최된다. 새달 26일 열리는 대회에서는 문무대왕면 장항리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출발해 풍력발

전소 입구까지 7km 구간을 달린다. 사이클과 MTB 부문에 30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대회 당일 일부 구간은 교통을 통제한다. 이 행사는 경주시자전거연맹이 주최하고 월성원

자력본부가 후원한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경주시자전거연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선착순 600명을 모집하며 별도의 참가비가 있고 기념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gj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농철 농업기계 사고 조심 또 조심 하세요

작년 경북도 농업기계 사고 사상자 626명...

경북농업기술원이 영농철 농업기계 사고에 따른 농업기계 사전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본격적인 영농철 농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며 “농업인 스스로 안전의식 강화와 농업기계 사전점검, 안전 수칙 준수로 안전한 농작업을

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경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사상자는 626명이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4-5월 사고가 집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촌지역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사상자 중 60대 이상이 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때문에 경북농기원은 영농철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영농철 시작 전 농업기계와 농작업 장소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작업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 등화 장치, 오일 상태, 타이어 압력,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을 미리 정비하고 농로, 논·밭 출입로 등을 점검해 무너지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보수한다. 농업기계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사용한다. 농업기계 기종별 올바른 조작 방법을 숙지하고 적합한 복장·작업모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사용 중 점검 시 반드시 엔진을 끄고 평탄한 곳에서 점검한다. 높이가 있는 포장 등을 진입할 때 직각 또는 디

딤판을 이용해 안전하게 진입하고 주행 시에는 교통법규를 준수,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야간에는 꼭 등화장치를 작동시키고 운행한다. 항상 안전의식을 가지고 농업기계 안전사고 대응책을 숙지,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비를 위해 2인 1조로 농작업을 실시해 긴급사고 발생 시 연락 체계를 확보한다.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평소 몸에 익혀둔다. 농작업 중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여유를 가지고 농작업을 한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므로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신중한 자세로 여유를 가지고 작업해야 한다. 농작업 전·후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 주고, 피로가 축적되지 않도록 1시간 작업 뒤 10분 휴식 시간을 가지며 농작업을 하루에 8시간 넘기지 않는다. 경북농기원은 농업기계 안전 사용 의식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경북형 완전돌봄의 선두주자, 경산 총출동!

경북도 다함께돌봄센터협회 제2차 정기총회 현장스케치 경산에 함께 모여 돌봄 외쳐

경산시가 저출산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인구소멸 위기는 시대 최고의 난제다. 때문에 지난달 29일 아동돌봄 전사 40여 명이 경산시 동부동 생활문화복합센터에 모였다. 아동돌봄 전사들의 정체는 다름이 아닌 다함께돌봄센터 경북지역 종사자들로 구성된 경북도 다함께돌봄센터협회 회원들이다. 다함께돌봄사업의 성과와 방향을 논의하고 경북지역 아동돌봄 서비스를 전국 최상급으로 올리기 위한 다짐을 굳건히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총회는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정기총회를 통해 2023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24년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부 종사자 간담회 시간에는 다함께돌봄사업의 현주소 및 방향을 제시해 경북형 완전돌봄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등학교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첫 등장한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전국 1,095개소, 경북지역에 68개소가 설치됐다. 아동돌봄의 최전방 지킴이 역할을 든든히 수행하며 매년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견인차로서 확고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경북도 다함께돌봄센터협회 회원 40여 명이 투철한 사명감과 아동들에 대한 열정으로 무장한 아동복지 전문가들로서 다함께돌봄센터의 발전과 아동들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힘쓰고 있다.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독특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함으로써 다함께돌봄사업이 아동돌봄사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시언 경북도 다함께돌봄센터협회장은 “경북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모두 단결해 경북 아동돌봄을 전국 최고의 아동돌봄, 경북 완전돌봄사업을 이 시대 최고의 저출생 대책 전략으로 우뚝 세울 것이다”며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전했다. 신경운 기자

구미시, 사회적공유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도내 첫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 공공 기여 객관적 기준 마련...

구미시가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한다.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제도는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의 총괄 관리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수용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기준 및 절차를 마련, 행정예고(4월19일까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된다. 사전협상제도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의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시는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되면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한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승인기관에 신청한다. 지금까지는 민간개발사업자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적정한 검토기준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전협상제도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 결정까지의 원활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대상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이다. 이은진 기자

Advertisement for Korea Press Foundation. It features a glass and a steering wheel, with the text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If you've emptied your glass, please vacate the driver's seat.) and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정한 슬로건입니다.' (This slogan was established by all citizens of the nation.)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홍보

경주시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대릉원 일원에서 열린 대릉원돌담길 벚꽃 축제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쳤다.

이날 징수와 직원 10여명은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리플릿을 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설명과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시는 벚꽃시즌에 맞춰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주 고향사랑기부제 봄바람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향사랑e음 온라인 사이트 또는 전국 농협 영업점을 통해 경주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며 5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경품을 증정한다.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 볼거리·즐길거리 가득

'벚꽃 라이트쇼' 등 특별한 추억 선물 무인 계측기 설치... 인파 밀집도 분석 음향 시스템 구축해 안내방송 진행

경주 봄기운을 고스란히 만끽한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가 3일 간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며 지난달 31일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1일 시에 따르면 축제 기간 행사장에 설치된 무인계측기를 통해 측정된 결과 총 14만1220명이 축제현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축제는 낮부터 밤까지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가득했다.

낮에는 버블쇼, 재즈, 서커스, 마임 등 관객들과 소통하는 거리예술 공연들이 30분 간격으로 곳곳에 펼쳐지고, 밤에는 새롭게 선보이는 '벚꽃라이트쇼'가 큰 호응을 얻었다.

매일 밤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음악이 어우러져 밤 벚꽃을 빛낸 관광객이 오랫동안 머무르며 소비하는 축제로 이어졌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벚꽃이 돋보일 수 있는 공간 연출은 방문객에게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경주'라는 평을 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 변화무쌍한 날씨로 나무 팔레트 테이블과 도로 위 인조 잔디로 공간은 정형화된 공골 텐트가 아닌 나무 소재를 활용한 공간 구성으로 감성을 한껏 더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벚꽃코인'은 친환경 체험을 즐기고, 먹거리 할인도 받을 수 있어 경주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벚꽃코인을 제시하면 벚꽃마켓 또는 돌담길

레스토랑에서 개당 1000원씩 할인받을 수 있었으며, 벚꽃장터에서 물건을 사거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체험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돌담길 아래 마련된 푸드트럭과 레스토랑, 벚꽃마켓도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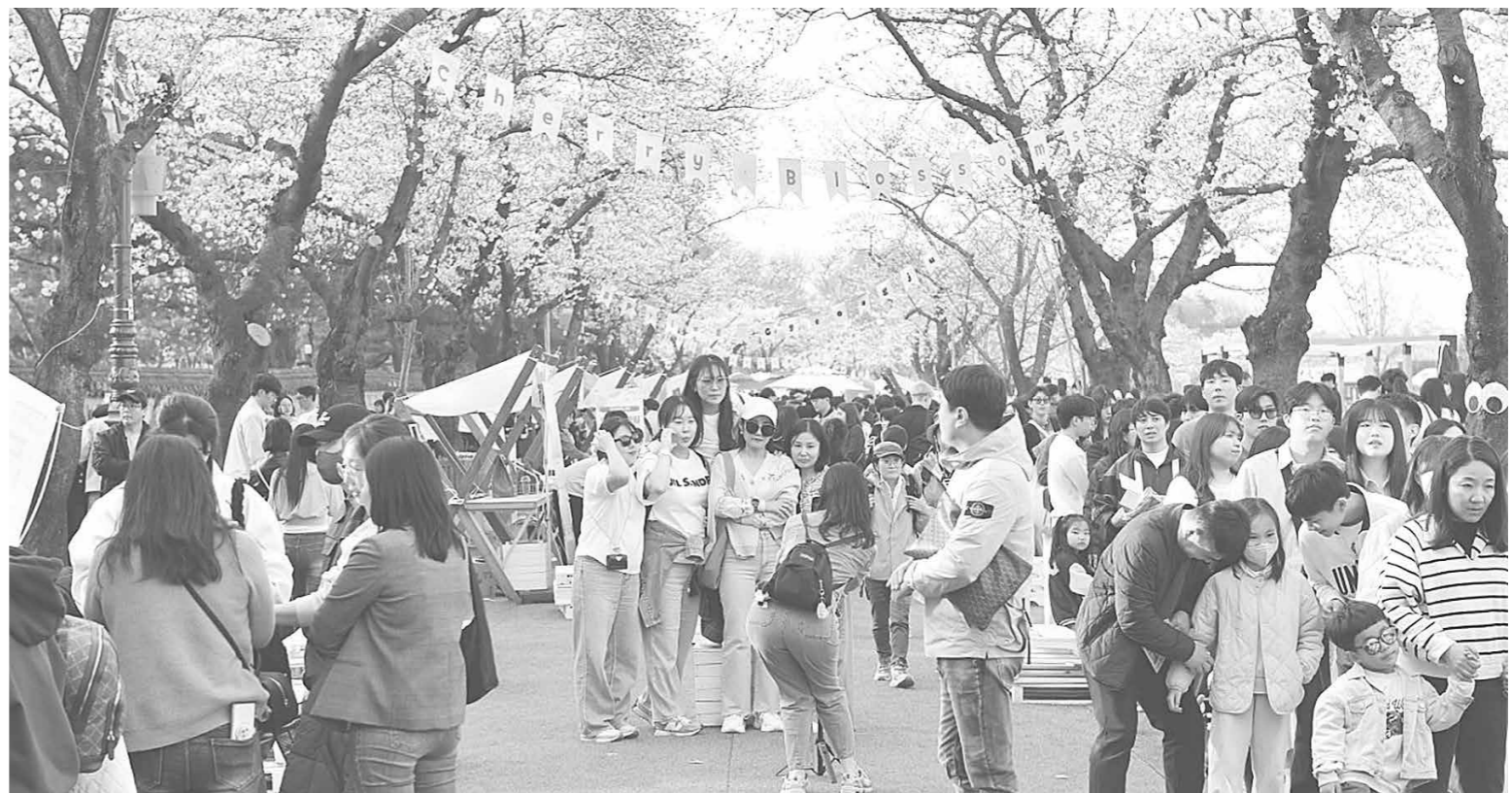
축제 개최 전 지역 소상공인과 가격, 품질, 용량 등을 미리 협의해 합리적인 서비스와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를 만들었다. 여기에 축제장에 가이드북을 비치해 위생, 서비스 등의 문제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인파 밀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축제장 내 무인 계측기 6대를 설치해 실시간 인파 밀집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1㎡ 당 0.6명을 초과하면 출입을 제한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릉원돌담길 500m 구간에 음향 시스템 구축으로 질서유지, 미아 발생, 비상시 경보 등의 지속적인 안내방송을 진행해 방문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축제라는 평을 받았다.

한편 경주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 인스타그램 공식계정 또는 (재)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경주의 숨겨진 벚꽃명당의 목록과 인근 관광지, 카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 변화무쌍한 날씨로 인해 축제 일정을 부득이하게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전국을 대표하는 벚꽃축제로 거듭나도록 더욱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에 가속도 낸다

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경주 민관추진단 실무회의 개최

경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경주민관추진단은 1일 영상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모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요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7개 분야 중 경주시가 도전하는 '공예와 민속예술' 부문에 대한 미래 사업을 발굴과 문화산업의 창의적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 중간보고 회도 함께 진행했다.

경주시는 '신라왕경 공예도시 경주(Royal Craft Gyeongju)'라는 비전으로 경주만의 차별적 가치를 가진 핵심 브랜드를 앞세울 예정이다.

경주는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재하고 있어 린이박물관학교와 박물관대학을 통한 공예 프로그램과 인적 인프라가 우수하며, 올 하반기 개관을 앞둔 신라금속공예관은 지역 공예산업의 불씨를 다시 키울 거점 공간으로 활용된다.

여기에 연간 1330만 명이 다녀간 핫플레이스 황리단길은 트렌디한 공예기념품 산업의 집결지로 창의 문화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충분하다.

또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처 사무국,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무국이 소재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행사를 개최한 경험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지정 요건에 부합하다는 게 경주

시의 설명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도시가 가진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계획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국제적 도시들의 모임으로 국내는 현재 12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올 7월 국내 정회원 도시 심사발표, 2025년 6월 유네스코 본부 국제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된다.

김성학 부시장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국내도시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시도 지난 2년 간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최종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예와 민속예술을 필두로 세계 문화도시와 교류하는 문화 강소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황성동, '구석구석 APEC 알기' 캠페인 실시



경주시 황성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9일 황성동 관내에 있는 중부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와 학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구석구석 APEC 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설명과 이에 필요한 시민 역량 등에 대한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온

민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황성동은 중부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이 새 학기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해 준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중부어린이집 웰컴 파티'에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APEC 정상회의에 대해 알려주고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APEC 정상회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원 중부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주유치의 긍정적 효과를 알게 됐고,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기원하며 아이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중소 기숙사 임차비 5억 4000만원 지원

지역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대상 월 최대 40만원 3년간 지원

경주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첫 시행된 이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고용촉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5억 4000만원 보다 3600만원 증액된 5억 4000만원을 편성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며,



신청은 홈페이지(www.gepahome.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임차건물 거주 근로자가 있는 경주

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건물 임차료의 90%, 최대 40만원까지 36개월 지원한다.

단 임차건물 내 거주 근로자는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취업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부지소(054-612-2969)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경북

김광열, 고향사랑기부금 1만 명 목표 제도 확산...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영해초등 56회 졸업생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해초등학교 56회 졸업생들이 고향 영덕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7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영덕군청에 방문해 졸업생들을 대표해 기부금을 전달한 박병창 씨는 "동창들과 고향 영덕군에 힘을 보태고 싶어서 다 함께 십시일반 기부금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해초등 56회 졸업생분들의 애환심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쓰겠다"고 화답했다.



청송군, 정책개발 역량강화 공동연수

청송군이 '정책(공모과제)개발 역량강화 공동연수'를 가졌다.

공동연수는 지난날 27, 28일 이틀간 충북 단양군 소노문 단양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날 6급 이하 직원 30명을 참석, 중앙정부 정책방향의 이해, 정책개발 및 실현방안 모색 등 실질적인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1일 차에는 한국정책역량개발원 이호선 대표 등 전문 강사진이 대한민국 전반의 트렌드 변화,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구조의 흐름, 정부부처별 주요 공모사업 및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접근법 등의 주제로 강의했다.

2일 차에서는 △문화관광 △골목상권 활성화 △스마트 농축산 등 8개 주요 정책분야를 팀별로 정책과제를 개발,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강의를 통해 습득한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청송여행누리사업 △진보객주시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과수 AI 예찰 및 스마트방제시스템 구축사업 등 분야별로 8개의 정책과제들을 발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보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워크숍은 직원 개개인의 정책개발에 대한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급과 연령대의 직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의 유연성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직급·세대의 시기와 의견이 함께 수렴되는 정책개발 기회의 장을 최대한 넓혀나가고자 하겠다. 발굴된 정책과제들이 청송군 발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병문 기자

더 성장하는 영덕 독려 재정 효율성 제고 주문

어느덧 취임한 지 2년세월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성과를 드러내고 성장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 자부심과 함께 큰 보람을 느낀다.

여러분이 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기여하는 만큼 성과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공익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보답하도록 하겠다.

김광열 영덕군수가 4월 정례조회에서 한 말이다. 김 군수는 지난달 영덕대계축제와 영해 318독립만세문화제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쓴 직원들을 치하, 더 나은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인도를 방문하는 동안 요기 수상과 면담하고 인도의 주요 기관단체들과 상호협약을 체결, 영덕군이 국제 웰니스 도시로 성장할 기틀

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군은 2022년부터 경상북도와 힘을 모아 국제 웰니스 체험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웰니스 관광과 치유산업의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며 적극적인 투자와 유치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달 경북형 마을숲정원 조성 공모사업과 문체부의 지역관광추진조직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한 직원들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했다.

정부의 건전재정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에 대응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신속집행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 1만 명을 목표로 제도 확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재정확보는 물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농가의 판로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지난달 30일 청소읍성에서 열린 2024 청도읍성예술제와 제2회 대한민국 퓨전국악대전에 1만 여명이 관람객이 모였다.

청도읍성예술제 대한민국 퓨전국악대전 롱런 홈런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의 어울림 청도읍성에 1만 여명 구름관중

2024 청도읍성예술제와 제2회 대한민국 퓨전국악대전이 롱런 홈런을 쳤다.

지난 30일 청도읍성에서 열린 행사에 1만 명의 구름관중이 몰렸다.

행사장에는 날이 풀리자,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 연인, 친구 등 많은 방문객들이 전통의상, 전통악기, 다도체험 등 다채로운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청도군 주최, 청도읍성예술제 추진위원회(회장 손성찬) 주관으로 개최된 청도읍성예술제는 오전 기원제를 시작으로 화양읍 여성농악단의 길놀이, 온누리국악예술단을 비롯한 지역예술인의 축하 공연으로 행사장의 활기를 돋웠다.

주 행사인 읍성밧기가 시작되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부녀회 회원들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로 구성된 긴 행렬이 머리에 돌을 이고 읍성 민속촌 앞에서 출발해 북문인 공북루(拱北樓)를 지나 태극문양의 연지 못을 돌기 시작했다.

연지 못에 비친 형형색색 한복차림의 행렬들은 봄꽃으로 만개한 청도읍성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뤘다.

예술제의 마지막 공연 미스터트롯 2 2위 '박지현'의 축하공연이 시작되자 행사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환호가 이어졌다.

(사)한국예총 청도지회(회장 손만식)의 주관으로 올해 제2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퓨전국악대전은 우리 고유의 전통국악과 다양한 음악장르를 결합해 경연을 펼치는 국악대회를 국악의 대중화와 전통의 재창조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행사에는 군산의 현모양처 '구희야와 전년도 우승자 '고도위밴드'의 축하공연, 그리고 8개의 본선 출전팀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퓨전국악의 맛과 아름다움을 연주했다.

올해 대한민국 퓨전국악대전의 우승은 '청연(국명 심술개)에게 돌아갔다.

저녁까지 이어진 행사는 현역가왕 준우승자 '마이진'의 신나는 축하공연으로 폐막의 아쉬움을 달랬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올해도 많은 방문객들과 주민들의 참여 속에 청도읍성예술제와 대한민국 퓨전국악대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전통문화와 현대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친 일상 속 봄의 활기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울진군,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환경 건설

농촌 협약 사업 추진 속도 활기찬 지역공동체 한 몫

울진군의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농촌협약사업 추진이 가속도다.

농촌협약사업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농촌다음 등의 목표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2022년 6월 농심축산식품부에 사업을 공

모, 2023년 4월 26일에 협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 330억 원 규모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진군 북부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23-2027년까지 5년간 울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180억원, 근남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한다.

울진군의 상위거점인 울진읍은 기능 강화 및 생활 SOC 복합화로 배후마을에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하위거점 중 하나인 근남면은 생활서비스 집적화를 추진,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사업계획으로는 울진읍에는 복합시설인 △울진 희망나래 복합센터 △청소년·청년을 위한 시설 등 4개 지립터를 마련한다.

근남면에는 복합시설인 근남면 행복나눔센터를 준공,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완성도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협약을 추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활기찬 지역공동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영양군, 현장 중심 전문 교육 질 높여

실무자들 역량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영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9일 종합복지회관에서 실무분과,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실

무 종사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법(실전)'에 관한 내용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교육은 공공기관의 보고서 컨설팅, 업체 경영연구원 박찬서 강사를 초빙,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5대 원칙, 정부지원 사업과 공모계획서

선정의 성공비밀, 보고서 작성 시 항목별 유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교육에 참여한 황모(여·33)씨는 "이번 교육으로 사업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실제 작성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대상으로 실습하는 시간을 통하여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울릉 - 김포시 자매결연 협약식



울릉군과 김포시는 지난날 28일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상호발전과 교류확대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날 9월 김포시의 자매결연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해 올해 2월 김포시 대표단의 울릉도 순회 방문과 4번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양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성사됐다.

협약식은 남한권 울릉군수와 김병수 김포시장장을 비롯해 김포시의회의장(김인수), 재정향우회장(선종우), 양 지역 체육회장 및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해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과 교류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양 지자체 간 우호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양 도시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자매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매결연 협약식을 계기로 울릉군과 김포시는 관광, 문화, 스포츠, 경제, 특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상생발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윤환 기자

오도창 공공위원장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실무종사자들의 실전 기술 역량이 강화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권윤동 기자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성주



영천시·영천농협, 벚꽃마라톤 대회

2024 영천담 벚꽃 100리길 마라톤 대회를 맞아 영천시 세정과와 NH농협 영천시지부가 함께 고향 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벚꽃마라톤 대회에 NH농협 영천시지부와 세정과 직원들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설치해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부혜택과 답례품 혜택을 안내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NH농협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점수 금융기관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온라인 기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5900개 가량의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용 NH농협 영천시지부장은 "영천의 새로운 활기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를 도와 고향사랑기부제를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벚꽃마라톤 행사에 농업 임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에 동참해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영천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자"라고 말했다.



고령군,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총력 대응

고령군이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군은 지난 11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감염목, 감염우려목을 포함한 약 1만1000여그루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50ha 등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방제 기간 이후에도 헬기를 이용한 항공 예찰 및 드론예찰과 예찰방제단을 활용한 정밀한 예찰을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를 위한 방제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방제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방제사업을 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지난달 14일 산림청 관계자 방문 시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김성필 산림복지과는 "군민들도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작업목을 빨간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배영백 기자



(사)영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0일 자양면 삼귀리에서 ㈜한중엔시에스와 함께 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러브하우스 7호' 기념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천에 사랑 전하는 '러브하우스!'

(주)한중엔시에스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인기몰이

(사)영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0일 자양면 삼귀리에서 최기문 영천시장, 박봉규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한중엔시에스 김환식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러브하우스 7호' 기념식을 진행했다.

'러브하우스'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한중엔시에스와 계열사가 모금한 성금으로 올해 7호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한중엔시에스 본사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함께 참여해 더 큰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봉사활동에는 집 수리 전문 봉사단체인 집관리봉사단이 참여했다.

지난달 1~9일까지 단열을 위한 벽체 보강 및 새 시공체를 비롯, 지붕 보수, 화장실 개축, 싱크대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집의 전반적인 보수 활동이 전개됐다.

올해 '러브하우스'에 선정된 가구원들은 "보금자리를 탈바꿈시켜주기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한중엔시에스 김환식 대표는 "개인 공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 더욱 묵묵히 재능을 베풀어 주신 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쾌

적한 환경에서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주)한중엔시에스는 영천시 채신동에 소재한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 기업으로 1995년 창업 후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환식 대표 및 임직원은 2014년부터 복지사가 지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여년간 지정기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억 5천여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최상하기자

영주시, '패러디 홍보 끝판왕' 등극

개알 재미, 개알 홍보 웃음 홍보 두 마리 토끼 잡아

영주시가 '과포' 패러디에 이어 '검은 사제들', '사바하'를 패러디한 쇼츠(Shorts)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면서 지자체 패러디 종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지역 출신인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영화 '과포'가 1천만 관객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고, 새로운 트렌드의 지역 홍보를 위해 장재현 감독 영화

시리즈 쇼츠(Shorts) 영상을 제작,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한 '과포', '과요'를 통해 지역 특산물인 풍기인삼과 산불 예방 메시지를 재치 있게 전달, 1일 조회수 2만을 기록하는 등 이목을 끌었다.

장 감독의 전작인 '사바하'를 패러디한 '이것 좀 잡아사바하', 동명의 원작 '검은 사제들을 패러디해 영상의 인기를 이어간다.

영상에서는 김고은 배우의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하게", 강동원 배우의 "말하라! 너의 이름을" 이재민 배우의 "왜 이해야 온 것이냐. 아이야"



검은 사제들

등 명대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주제를 감각적인 연기로 전달하며 재미를 선사했다.

영주 호미, 선비세상 등 숨겨진 홍보 코드를 찾아보는 개알 재미를 전하며 패러디 영상의 인기에 힘을 보탤다.

김종길 홍보전산실장은 "천만 영화 과포에 이어 영주시에서 제작한 패러디 영상이 천만 영상이



사바하

되어 영주시를 알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가 제작한 장재현 감독 영화 패러디 영상은 영주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장 감독은 영주시 평은면 출신으로, 검은 사제들, 사바하, 과포 3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작품성과 흥행 모든 면에서 성공한 감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전성기 기자

의성군, 외국인 유학생 대상 행정인턴 사업 시행

군 행정 알릴 기회도 갖게 돼 군정 운영에도 큰 보탬 기대

의성군은 올해 8월까지 외국인(미안파) 유학생 3명을 대상으로 행정인턴 사업을 한다.

외국인 유학생 인턴은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을 추천받아 선발하였으며, 3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인턴 근무에 들어가게 된다.

의성군 외국인 유학생 인턴은 새마을교육과에 배치되어 본청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되며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군은 외국인 유학생 인턴이 부서에 같이 근무할

으로써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의성군 행정에 대한 의견도 듣고, 이들에게 의성군 행정을 알릴 기회도 갖게 되어 군정 운영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턴 사업에 참여해 행정 경험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각 분야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이들이 의성군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점차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 의성군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첫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한다.

박재성 기자

성주군, 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 건강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앞장

성주군 용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용암면적십자회원 20여명은 지난달 29일, 용암면 상언리에 거주하는 하모 어르신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다.

하모 어르신은 노인부부이다. 부부가 모두 장애가 있는 상태로 동등불편 및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장기간 집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심한 악취가 나는 등 주거환경이 불량하며 물건을 정리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두 단체에서 연계해 지원을 하게 됐다.

집안 구석구석 버릴 물건과 식사 후 방치해 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사용 가능한 물건을 깨끗하게 닦고 실내 및 욕실의 벽체와 바닥의 찌든 때를 제거한 후 두 어르신에게 위생교육과 함께 청소된 집안이 유지되기를 당부했다.

하모 어르신은 "2년 전부터 부인이 다리가 아프면서 집안이 엉망이 되었다. 청소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도움을 주어 너무 고맙다"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주민호 용암면장은 "도움을 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적십자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주는 지역 자원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터치 한 번으로 만나는 봉화군청의 모든 것!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도입 봉화군 주요관광지 소개 홍보



봉화군이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청사 방문 민원인을 위한 청사 배치도, 직원 안내도, 봉화군 관광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터치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도입된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은 총 18대로 군청 로비에 비치된 통합키오스크(무인 안내기)와 부서별 조직도 17대로 구성돼 있다.

군청사 로비 입구에 안내 통합키오스크(무인 안내기)를 통해 업무 및 직원 검색, 주요 행사, 공지 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봉화군 주요 관광지 소개, 군청 홍보 영상 등의 자료를 볼 수 있다.

부서별 출입문에 설치된 조직도에서는 부서 구성원의 업무분장, 연락처, 좌석 배치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인사 이동이나 조직개편 시 종이 조직도를 수정하는 번거로움 없이 시스템 연계를 통해 바로 처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흐름에 발맞춰 도입된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통해 군민분들께 더욱 편리한 행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기 기자

의성군,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 이상 無

저수지, 관정 및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체계적

의성군은 영농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군은 관내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955개소, 저수지 642개소, 관련 장비 175대의 관리 상태를 자체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시설물 현장 점검 중이다. 신설된 양수 시설 6개소는 시험가동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및 부품 교체 등 필요한 시설은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며, 군 자체 데이터정보센터를 활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현재 의성군의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90.7%로 평년(66.9%) 대비 135.6%로 유지하고 있어 올 봄 영농용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봄 영농기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2024 고령 대가야축제 성공신화 쏘아올렸다

22만여 명의 구름관중 몰려
지산동고분군과 테마관광지
우럭지에 야간경관조명 배치
늦은밤... 관광객 발길 이어져

2024 고령 대가야축제가 성공신화를 쏘아올렸다.

지난달 29~31일까지 3일간 열린 '2024 대가야 축제'에 22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대가야축제를 방문한 이유는 축제콘텐츠 업그레이드와 야간경관 조성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벚꽃 개화로 인해 상춘객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올해 18회째를 맞은 고령 대가야축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발맞춰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주제로, 지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대가야박물관 일대에서 개최됐다.

대가야축제는 축제 첫날 대가야종묘대제와 고령군민의 끼를 한껏 발산한 군민화합마당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마무리했다.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주제관에서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의 추진 과정, 대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모두가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했다.

축제 둘째 날과 마지막 날 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축제의 대표 공연인 "100대 가야금 공연"은 100인의 가야금 연주자가 참가함으로써 웅장한 연출과 아름다운 선율

로 대가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가야금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객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물했다.

둘째 날에는 가야문화권 합창 페스티벌과 창작뮤지컬 '도둑맞은 새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펼쳐진 가야풍류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공연 중간 펼쳐진 대가야별빛쇼(불꽃놀이)로 대가야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아, 많은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축제 마지막 날 대가야읍 일대에서 펼쳐진 '대가야의 길' 거리 퍼레이드에는 지역주민 및 축제 참가자 등이 참여했다. 각 읍면을 대표하는 독특한 의상과 컨셉으로 긴 행렬을 구성,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후 문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가야풍류 두 번째 공연으로 성대하게 마무리했다.

축제는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로 구성하여 지난 축제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보여줬다.

복합문화공간과 이색 휴게공간 연출로 관광객들에게 신선함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올해도 지산동고분군과 테마관광지, 우럭지에 화려한 야간경관조명을 배치, 늦은 밤까지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은 축제장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다.

고령군은 "주민이 즐거운 축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가족 단위로 즐길거리가 있는 축제"라는 기획방향 아래 알차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 축제는 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발굴로 대가야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배영백 기자

